

동네북 키움... 상위팀 승수 쌓기 '제물'

1~5위 팀에 4승28패 절대 열세
각팀 "키움못잡으면순위싸움끝"
최근 8연패 수렁... 승률 2할5푼
선발 붕괴에 타선 침체 겹친 탓
새 외인 알칸타라가 마지막 희망

프로야구 키움 히어로즈가 좀처럼 부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키움은 27일 광주 KIA 타이거즈전에서 5-7로 역전패해 최근 8연패 수렁에 빠졌다. 승률은 0.250(14승 42패)까지 떨어졌다.

역대 프로야구에서 승률이 3할에 못 미친 채 시즌을 마친 사례는 1982년 삼미 슈퍼스타즈(0.188), 1986년 빙그레 이글스(0.290), 1999년 쌍방울 레이더스(0.224), 2002년 롯데 자이언츠(0.265) 4번뿐이다.

프로야구 원년인 1982년의 삼미는 사실상 실업 야구와 큰 차이가 없었고, 1986년 빙그레는 막 창단한 신생팀이었다.

1999년 쌍방울은 국제통화기금(IMF) 금융위기로 해체되기 직전이라 정상적인 팀이 아니었다.

0.250로 추락한 키움 승률의 심각성이 생생하게 다가오는 대목이다.

올 시즌 프로야구 순위는 사실상 키움전 상대 전적에 따라 결정됐다.

1위 LG 트윈스(5승 1



9일 서울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린 프로야구 2025 신한 SOL 리그 KBO리그 한화 이글스와 키움 히어로즈의 경기. 8회초 1사 2-3루 한화 이도윤 타석을 앞두고 교체 투입된 키움 마무리 투수 주승우(가운데)가 이도윤을 삼진, 이원석을 유격수 땅볼로 잡아낸 뒤 더그아웃으로 향하고 있다.

패)와 2위 한화(5승 1패) 모두 키움에 절대적인 우위를 점했고, 3위 롯데는 6전 전승을 거뒀다.
4위 kt wiz(7승 2패), 5위 삼성 라이온즈(5승)도 키움을 승률 상승 디딤돌로 삼았다.

합산은 28승 4패, 승률 0.875다.
한 해설위원은 "현재 키움의 승률이 3할에도 못 미치니, 키움과 만나는 팀은 3연전 가운데 2승 1패를 해도 손해를 보는 느낌이 들 것"이라고 짚었다.

키움 부진의 가장 큰 이유는 마운드, 그 가운데서도 선발진 붕괴가 가장 치명적이

었다. 키움의 팀 평균자책점은 5.98로 리그 평균(4.18)보다 2점 가까이 높다.

경기당 평균 6점가량 내주고, 팀 타율 0.233(리그 9위)의 허약한 타선은 이를 뒤집을 힘이 없다.

'키움을 못 잡으면 순위 싸움에서 밀린다'는 나머지 9개 구단의 공통된 생각 때

문에 키움은 더욱 힘든 싸움을 이어 가고 있다.

많은 구단이 키움과 상대할 때 선발 순서를 조정해 되도록 1~3선발을 투입하고자 한다.

키움의 최근 8연패 기간 만난 상대 선발은 라일리 톰슨(NC 다이노스), 원태인, 아리엘 후라도, 데니 레예스(이상 삼성), 오원석, 엔마누엘 데 헤이스, 소형준(이상 kt), 애덤 울리(KIA) 등이다.

홍원기 키움 감독은 "우리랑 만나는 팀은 다 이렇게 나온다. 이게 지금 우리 팀의 현실"이라고 씩씩하게 말했다.

그래도 키움에 희망은 있다.

타격 부진에서 벗어나지 못하던 외국인 타자 아시엘 푸이그를 방출한 키움은 외국인 투수 라울 알칸타라를 영입했다.

알칸타라는 두산 베어스와 이번 주 주말 3연전 가운데 한 경기에 선발 데뷔전을 치를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25시즌 프로야구 신인드래프트 전체 1번 정현우가 복귀하면 선발진은 안정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

어제 부상으로 개막 후 3경기(2승 평균자책점 4.80)만 던지고 1군에서 말소됐던 정현우는 27일 한화 이글스와 퓨처스(2군) 리그 경기에 등판해 1이닝 2구 비자책 2실점으로 복귀전을 치렀다.

정현우는 퓨처스 리그에서 실전 감각을 회복한 뒤 머지않아 1군에 복귀할 것으로 보인다. 정현우가 선발진에 안착하면 키움은 케니 로제버그~라울 알칸타라~하영민~정현우 4선발은 확보할 수 있다.

스카이데일리·연합뉴스

스위스 그라스호퍼 이영준
승강 플레이오프 1차 결승 골

스위스 프로축구 그라스호퍼 클럽 취리히에서 활약하는 장신 공격수 이영준이 승강 플레이오프(PO) 첫 경기에서 선제 결승골로 팀의 승리에 앞장섰다.

이영준은 28일(한국시간) 스위스 루가노의 스타디오 디 코르나레도에서 열린 FC 아라우와의 2024-2025 스위스 프로축구 승강 PO 1차전에서 경기 시작 14분 만에 0-0 균형을 깨뜨리는 선제 결승골을 터뜨려 4-0 완승의 발판을 닦았다.

이번 시즌 스위스 1부 슈퍼리그에서 3골 4도움을 기록한 이영준은 23일 최종 38라운드에 이어 공식전 2경기 연속 득점표를 가동했다.

이영준은 오른쪽 측면에서 들어온 동료 베노 슈미츠의 낮은 패스를 받아 페널티 아크 오른쪽에서 강한 왼발 터닝 슈트를 날려 골 그물을 흔들었다.



그라스호퍼 이영준(오른쪽)이 승강 PO 1차전에서 골을 넣은 뒤 동료와 기뻐하고 있다. 그라스호퍼 구단 인스타그램 캡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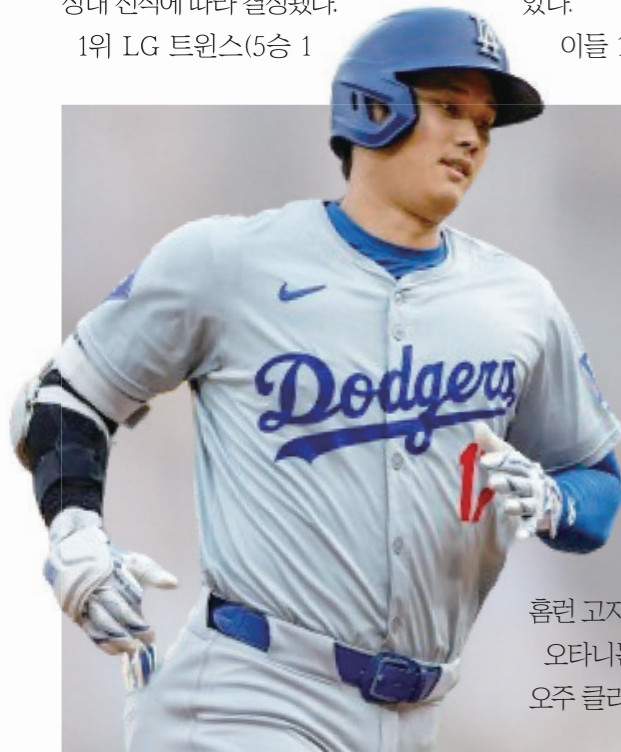
스위스 슈퍼리그를 12개 팀 중 11위(승점 39)로 마쳐 승강 PO를 치르게 된 그라스호퍼는 2부에 해당하는 챌린저리그 2위 팀 아라우와의 첫 경기에서 이영준의 골을 시작으로 대승으로 기선을 제압해 1부 잔류의 청신호를 켰다.

전반 41분 파스칼 슈리프, 후반 34분 니콜라스 무치의 연속 골이 터지고 후반 41분 세코 아우무가 페널티킥으로 한 골을 더 보탤었다.

다만 이영준이 득점 이후 전반 27분 부상으로 교체돼 나간 점은 우려로 남았다.

그라스호퍼의 원정 PO 2차전은 31일 열린다.

다저스 오타니, 20홈런 고지 가장 먼저 올랐다



오타니 쇼헤이 (31-로스앤젤레스 다저스·사진)가 올 시즌 미국프로야구 메이저 리그(MLB)에서 가장 먼저 20홈런 고지를 정복했다.
오타니는 28일(한국시간) 미국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 프로그레시브 필드에서

3경기 연속 홈런 맹타... MLB 전체 1위

열린 2025 MLB 클리블랜드 가디언스와 의 방문 경기에서 팀이 2-0으로 앞선 4회 2사 1루에 나와 왼쪽 펜스를 넘어가는 2점 홈런을 쳤다.
상대 선발 테너 비비의 바깥쪽 초구 컷 패스트볼을 그대로 밀어 쳐 비거리 362피트(약 110m)짜리 시즌 20호 홈런을 터뜨

렸다.
오타니는 최근 3경기 연속 홈런포를 쏘아 올리면서 MLB 전체 홈런 1위로 올라서고 3년 연속 리그 홈런왕을 향해 전진했다.
이날 1번 지명 타자로 선발 출전한 오타니는 홈런 포함 3타수 1안타 2볼넷 2타점

2득점으로 활약하며 팀의 9-5 승리에 앞장섰다.

전날 경기에서 6일 만에 선발 출전했다가 3타수 무안타에 그쳤던 다저스 김혜성은 이날 벤치에서 경기를 지켜봤다.

다저스는 김혜성을 대주자 또는 대수비로 기용하지 않고 경기를 끝냈다.

시즌 34승(2패)째를 수확한 다저스는 내셔널리그 서부지구 1위를 지켰다.

인한서 플러스

글루코사민 + 콘드로이틴 + MSM +브로멜라인 + 레시틴



슬개골과 고관절의 염증

오프라인 전용



온라인 전용

관절 관리는 치료보다 예방이 중요합니다!

